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과정 참여 어머니의 경험: 자기 인식의 변화*

Experiences of Mothers Participating in Consultant Training to Build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Community: Changes in Self-Awareness

정계숙¹ 박희경² 손환희³

Kai-sook Chung¹ Hee-kyung Park² Hwan-Hee Son³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of consultants for the purposes building 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Methods: Participants were 14 mothers in the first phase, 10 mothers in the second phase, and 8 mothers in the third phase. Data were collected from stories shared during the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The mothers' experienc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qualitative analysis procedures.

Results: Mothers'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of consultant for buil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and seven sub-themes. The first theme was "self as a parent" including "looking inside myself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looking inside myself in the relations with other mothers". The second theme was "self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which consisted of "sharing emotions through ritual", "forming communitarian identity through hospitality and solidarity" and "growing as a social mother". The third theme was "self as a educational community consultant" out of which emerged "setting up shared visions", "building practical community competence", and "creating fields of community implementatio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ed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practices of building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community and the direction and methodology of parent education.

key words mothers with young children, consultant train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community, learning community

* 본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3A2067778).

¹ 제1저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따뜻한교육공동체연구센터(SSK)
연구교수
(e-mail :yimhk9@pusan.ac.kr)

³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따뜻한교육공동체연구센터(SSK)
전임연구원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학교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의 시장 논리가 적용되면서 구성원들

을 서열화하고 서열에 따른 차별화가 심화되어 구성원 간의 소외, 무관심, 학교폭력 및 상호불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 그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강영택, 2009; 송연주, 이상수, 2015; 신현석, 2003). 교육공동체는 돌봄, 신뢰, 협동, 헌신을 통한 결속과 연대로(Sergiovanni, 2004) 구성원들이 교육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유대감과 친밀감을 기반으로 협동하는 공동체이다(이종태, 1999). 따라서 교육공동체의 구현은 구성원 간의 상호 돌봄과 의미 있는 관계성을 통해 경쟁과 소외, 무관심, 불신 등의 현재 교육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박철희, 2014; Furman, 2002; Noddings, 2002; Sergiovanni, 2004).

이러한 점은 유아교육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CCTV 설치 의무화 및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등은 학부모와 기관 간에 깊은 불신을 유발하여 유아교육기관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에 간접적이지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부모들의 양육 어려움과 스트레스이다. 핵가족화와 산업화로 대가족과 분리되면서 부모는 양육 지원 체계를 잃어버렸고, 이에 자녀 양육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었으나 맞벌이 부부는 점점 증가하면서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치열한 경쟁은 부모-자녀 사이의 강한 일체감 때문에(최상진, 1994) 자녀의 출세나 성공을 자신의 자존심과 직결시키는 부모에게 자신의 생존과 아이의 교육과 성공에 대한 이중의 불안을 느끼게 하여 양육자 역할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김미숙, 문혁준, 2005; 지성애, 2016; Baker, Blacher, Crnic, & Edelbrock, 2002). 그러나 이러한 양육에 관한 당면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체계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불평등의 만연과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 자본주의 사회의 부모 역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이경아, 2008) 양육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부모는 불안 해소를 위해 자녀의 경쟁력과 행복에 근시안적으로 집중하여 조기 사교육의 폐해를 알면서도 장시간 어린 아이들을 집 밖으로 돌게 만든다(이부미, 이수정, 2010; 최은아, 2014). 이처럼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국 모성의 가족주의적 성향이나 현상(나운경, 태희원, 장인자, 2007)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특성은 아동이 또래와 협력하는 정도와 정적 상관성이 있고(Collins & Madsen, 2003)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교사-아동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Wyrick & Rudasill, 2009). 이에 공동체 문제를 야기한 공교육 불신 현상의 원인은 학교와 교육체제 구성원 간의 관계 문제 때문임(신현석, 2003)을 두고 보면, 결국 양육 불안과 스트레스가 야기한 유아기 부모-자녀관계의 약화는 부모-교사관계, 교사-유아관계 및 유아-유아관계를 연쇄적으로 약화 또는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아 장기적으로 유아교육기관 구성원 간의 공동체성이 악화될 위험성을 높인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은 신뢰와 건강성을 되찾고 부모의 지원체계로서 잘 기능하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간에 진정한 만남과 돌봄을 이루는 공동체로서(정계숙, 윤갑정, 견주연, 차지량, 박희경, 2016),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유아교육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돌보며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함으로써 구현되므로, 구성원들은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자율성, 다양성 인정, 배려, 신뢰, 상호 협력 및 존

중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정계숙, 윤갑정, 박희경, 2017). 특히, 부모는 일차적 양육 책임자이자 자녀에게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행동양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전현곤, 2009), 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에 중요한 요인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사건 당시 이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부모들의 적극적 목소리는 유아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하여(한겨레, 2019. 3. 17),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의 공동체성 회복에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는 교육의 주체이기 보다는 교육의 수혜자이자 피교육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자녀의 학교와 관련된 참여는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배지희, 2008). 따라서 전형적인 부모 참여와 피교육자 입장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부모 관여(parent engagement)를 통하여 부모가 학교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McDermott, 2008). 이를 위해 부모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나누는 수준의 동반자를 넘어 사회 정의와 민주적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나 지역사회와 상호 존경의 동맹을 이루는 진정한 동반자(authentic partnership)(Auerbach, 2012)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보다 폭넓은 네트워크 속에서 유아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관점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유아교육에서 유아와 부모의 발달을 위한 컨설팅(consultation)은 유아특수교육과 조기중재 장면(early education and intervention settings)에서 먼저 발달되어 왔다. 컨설팅은 컨설턴트, 컨설티 및 내담자(client)를 포함한 삼자 구도의 간접적인 서비스 전달 모델의 하나이다. 컨설턴트와 컨설티는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데 그 목적은 현재의 관심사 뿐 아니라 미래의 문제 예방에도 초점이 있다. 컨설팅의 주요 과제는 컨설티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익히고 실천하여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거나 코칭하는 전문적인 지원을 포함한다(Wesley & Bussey, 2004).

이러한 컨설팅 관련 연구에서 부모가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한 국내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소수가 발견된다. 부모 컨설턴트(parent consultants)는 일반 부모를 위한 서비스나 교육의 목적 보다는 의료 분야에서 먼저 시도되었다. 1975년 미국 Rhode Island의 소아암 병원에서 소아암 자녀를 양육하고 치료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부모 컨설턴트로 훈련하여 환아의 부모에게 병원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게 한 결과, 환아 부모, 의사와 간호사, 부모 컨설턴트 및 병원 관계자들 간에 공동체 의식이 공유되었다(Pitel et al., 1985). 또한 중등학생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부모 컨설턴트가 일반부모의 가정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지원한 연구(Stormshak, Dishion, Light, & Yasui, 2005)가 있다. 그 외 간접적인 서비스 전달 모델인 컨설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가족과 영아를 함께 지원한 경우도 있다. 즉, 지역사회의 부모를 부모교육자로 양성하여 저소득층 부모와 자녀를 지원한 Parents as Teachers 프로그램(Wagner, Spiker, & Linn, 2002), 가정방문-집단중재 혼합 프로그램(Katz et al., 2011) 및 가족 컨설턴트를 활용한 장애유아를 위한 가족 중심 유아교육 모델(Family-Centered Preschool Model)(Kaczmarek, Goldstein, Florey, Carter, & Cannon, 2004)은 부모의 양육 기술 향상

에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부모 컨설턴트는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달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특수 요구가 있는 가족 외에 양육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일반 부모들도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획득은 물론 자신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공감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다(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그러므로 부모들에게는 주변에서 쉽게 접촉하여 양육자로서의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줄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전문성도 갖춘 훈련된 양육 지원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양육 지원자로서 선행연구들에서 그 효율성이 제시된 어머니 컨설턴트를 생각해볼 수 있다. 고찰한 바와 같이, 어머니 컨설턴트는 자신의 자녀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양육 컨설턴트로서 훈련을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정보적,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주변 부모를 돕는 양육 지원자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말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 컨설턴트는 주변 부모들의 건강한 양육 지원자로 역할이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 이들의 역할을 확장하면 건강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소극적인 참여자, 교육수혜자로 머물러 있는 자녀가 재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부모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른 부모들의 사회 지향적 사고의 개발을 돕는 촉진자,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컨설턴트란 내담자 출신의 준전문가로(이성한, 1998) 즉,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 참여와 협력활동으로 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경험한 어머니가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통해 부모 역량은 물론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같은 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나 주변의 부모들에게 접근성 높은 양육지원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국에는 내 자녀의 양육자 역할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의 건강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의 옹호자, 실천자 역할을 하는 어머니이다. 즉, 타인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야말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해 줄 정의(justice)라는 관점(허라금, 2006)에서 내 자식만을 돌보며 보살핌을 실천해 온 어머니들이 가족중심적 모성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며 그것에 정의라는 가치를(나운경, 2014) 부여하고 주변의 어머니들도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말한다.

어머니 컨설턴트의 부모와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역할 가능성과 잠재 역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에 관한 연구는 부모 참여 컨설턴트 양성에 관한 연구(정계숙, 견주연, 최은아, 김지연, 2015)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유아교육 분야의 컨설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기관 운영 및 교사의 수업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효과 연구(김성숙, 임부연, 2015; 김은영, 임재택, 2017; 이상례, 유영의, 2014; 최은아, 고희선, 2018)로, 부모를 유아교육기관 등의 교육체제와 연결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과 역할을 증진시키고자 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사회적 역량은 부모 역량의 한 부분이나 양육 역량의 중요성에 가려져 최근에 와서야 개념화된 역량으로 앞으로 더 부각될 필요가 있으며(정계숙, 최은실, 2013)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은 이 역량을 강화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역량은 미래 지향적 부모 역량과 함께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인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자율성, 다양성 인

정, 배려, 신뢰, 상호 협력 및 존중 등의 심리적 역량과 공동체의 핵심 가치 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정계숙, 윤갑정, 박희경, 2017)이라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학습공동체가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 또는 열정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생각을 탐색하고 함께 실천하고 성장하는 집단이며(Mercieca, 2017), 학습공동체는 구성원 상호 간의 공동체성을 근간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다(오혁진, 2005). 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참여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식의 생성과 공유를 전제로 학습자의 주체성을 복원하고자 한다(홍숙희, 2010). 그리고 이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혼자 발견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Lieberman & Wood, 2003), 협동의 문화가 만들어져 지식뿐 아니라 정서적 위안도 얻을 수 있으며(고영미, 2005) 자기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속에서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박순선, 노진형, 2018). 따라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학습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공유와 생성을 통한 학습과 함께 실제 교육공동체를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여 유아교육공동체 역량을 체화하는 경험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습공동체는 학습자의 변화를 기반으로 진화와 성장의 과정이 나타나는 역동적, 상대적인 특성이 있어(윤창국, 2002), 구성원들의 진화와 성장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자체의 진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학습공동체 중심의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어머니의 부모 역량과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진화하고 성장한 학습공동체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하위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어 또래 부모들과 양육 관련 문제로 접촉 기회가 많은 어머니를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로 양성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서, 먼저 양성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참여 과정에서 가진 의도적, 비의도적인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펴보았다. 이로써 참여어머니가 일반 부모에서부터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가 되어 가는(becoming) 과정을 드러내어 부모의 역할과 부모교육의 지평 확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A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 중 기관에서의 안내문과 본 양성과정에 대한 원장의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들로, 1단계 과정에는 14명, 2단계

과정에는 10명, 3단계 과정에는 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어머니들에 대한 소개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소개

현재 연령	참여자 소개	참여 단계		
		1	2	3
A 48세	주부. 1남 2녀를 키우고 있음. 현재 초등학교 2학년 9살인 늦둥이 막내아들과 누나들의 터울은 15살과 16살로 딸들은 대학생임. 유치원에서 하는 숲 모임에 참여하였고,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0	0	0
B 38세	주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9살인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음.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둠. 스웨덴에서 1년 정도 살다온 경험이 있음. 유치원에서 하는 숲 모임에 참여하였음.	0	0	0
C 49세	주부. 1남 2녀를 키우고 있음. 막내아들이 6세며 다른 자녀들은 대학생임. 유치원에서 하는 숲 모임의 회장이었음.	0	0	0
D 34세	자영업.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키우고 있음. 직업이 있으나 매일 출근하지는 않음. 장애아 보호 시설 등에 자원봉사를 다님. 어머니 씨앗동아리로 독서모임에 참여했었음.	0	0	0
E 39세	주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음. 현재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임. 양성과정 참여 초반엔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나 곧 그만둠. 유치원에서의 어머니 씨앗동아리로 독서모임에 참여했었음. 3단계 양성과정 중 도서관 사서 준비를 시작함.	0	0	0
F 34세	주부. 1남 1녀를 키우고 있음. 첫째는 아들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딸은 7살임. 유치원에서 어머니 씨앗동아리로 독서모임에 참여했었음.	0	0	0
G 39세	주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음.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동프로그램에 자주 참여를 함.	0	0	0
H 39세	주부. 1남 1녀를 키우고 있음. 첫째는 딸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임. 출산 전까지는 직장을 다녔었음. 주민센터에서 하는 영어 수업에 다님. 유치원에서 어머니 씨앗동아리로 독서모임에 참여했었음.	0	0	0
I 35세	주부. 7살 아들과 1살 딸을 키우고 있음. 양성과정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요가 강사를 하다가 그만둠.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생태 유아교육 중심의 숲 모임에 참여하였음. 2단계 양성과정 후 둘째를 임신함.	0	0	
J 39세	주부이지만 마을서점에서 역사 강의나 아동독서지도를 정기적으로 함. 아들 둘을 키우고 있음.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7살임. 유치원에서 어머니 씨앗동아리로 독서모임에 참여했었음.	0	0	
K 39세	주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음. 대학원 졸업. 지난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중간에 대도시에서 아이를 자연과 함께 키우고자 인근 중소도시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할 계획하였고, 1단계 과정 중에 이사를 감.	0		
L 36세	주부. 초등학교 2학년 딸과 7살 딸을 키우고 있음.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육아휴직 중에 지난 학습공동체에 참여함. 직장을 아예 그만둘지 고민하다가 1단계 과정이 끝나고 복직을 하게 됨.	0		
M 37세	주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음.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생태 유아교육 중심의 숲 모임에 참여함.	0		
N 39세	주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음. 현재 첫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임.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생태 유아교육 중심의 숲 모임에 참여하였음.	0		

2. 연구절차

1)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 계획

(1) 양성과정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어머니 자신과 주변 부모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자기 개발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유아교육기관과 부모,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유아교육공동체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어머니 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천 경험을 포함하는 총 3단계의 양성과정을 구성, 운영하였다. 이는 Thomas & Footrakoon(1998), Doherty & Carlson (2002) 등에서 제안된 부모교육과정의 세 유형 중 변형적 모형(transformational mode)에 기반 하였다. 이 모형은 부모 학습자가 자기 자신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매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이 처한 사회적 맥락을 바라보고 자신, 가족 및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1단계 과정은 현 시대의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양, 공동체와 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실습, 2단계 과정은 행복의 의미와 관계의 중요성 이해, 가족공동체 되짚어보기, 가족 확장성의 의미에서 공동체 구현의 방향성 탐색 및 육아컨설팅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3단계는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한 사유와 방법 탐구 및 기관에서의 컨설팅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2) 양성과정 단계별 운영 계획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로서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양성과정의 운영은 성인학습자로서 어머니들의 특성을 반영하여(McDermott, 2008) 3단계로 구성하였다. 즉, 성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토론과 즉각적인 문제해결과 같은 경험적 교육 테크닉을 활용하고 학습자의 준비도를 고려하였으며, 듣기-대화-비판적 사고-실천 행동 과정을 포함하여 학습과 실천 행동에서 초기의 안내 후에는 자기 지시적(self-directedness) 행동으로 전환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1단계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였다. 이에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 운동가이자 교수인 조한혜정의 ‘다시, 마을이다(2007)’와 ‘자공공’(2014)을 학습공동체 진행을 위한 주 교재로 선정하였다. 매주 1회씩 7회기동안 학습공동체를 진행한 후, 양육에 대한 1차 컨설팅 실천 경험을 갖기 위해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유치원과 마을서점에서 일반 부모들을 모집하여 집단으로 부모모임을 1회기씩 계획하고 실행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적 지식 학습의 일환으로 공동체 관련 전문가 3인(교육공동체 연구자, 현장 실천가 및 혁신유치원 운영자)으로부터 6시간의 집중교육을 받았다.

2단계는 행복의 의미와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계의 시작인 가족공동체를 되짚어보고 가족 확장성의 의미에서 공동체 구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과정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를 통한 행복의 확산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와 제임스 파울러의 행복은 전염된다(2010)와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2010) 그리고 가족공동체와 확장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조한혜정(2006)의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Deborah Tannen(2015)의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익숙해서 상처인 줄 몰랐던 말들을

바꾸는 시간’, 한국교육방송공사(2015)의 ‘가족 쇼크: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김희경(2017)의 ‘이상한 정상 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Jens Corsssen과 Christiane Tramitz(2016)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가: 관계 맺기 심리학’ 등을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였다. 5회기의 학습공동체 운영 후, 컨설턴트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대1로 2차 육아컨설팅 실습 및 교육공동체의 모범 사례인 마을공동체 도서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교육공동체 실천방법론 등에 대해 듣는 기회를 가졌다.

3단계는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한 사유와 탐구과정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용선 등(2016)의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와 컨설턴트로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내용의 Cecile Andrews(2013)의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을 학습공동체의 교재로 선정하였다. 학습공동체 활동 후, 어머니이자 컨설턴트로서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컨설팅의 일환으로 부모지원 발전 방안과 앞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는 실습을 하였다. 그리고 3차 실습의 일환으로 A대학의 유아교육공동체 활동인 단기 부모교육 강좌에서 2인 1조로 2, 3회씩 소집단 모임을 60분씩 운영하였고, 자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역의 공립유치원에서 실시된 양육컨설팅 프로그램에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컨설턴트 역할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회기와 회기 사이 및 단계 간의 휴지기 동안에는 밴드와 카톡방을 통해 참여 어머니들의 근황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 등을 공유하면서 학습 내용을 상기하고, 다음 회기나 단계에 대한 기대와 어머니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운영단계에 따른 회기별 주제와 활동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회기별 주제와 활동 내용

단 회 계 기	날짜	흐름	주제	시간	나누며 함께하기
1 단계	1 17.2.14	학습 공동체	오리엔테이션	120분	오리엔테이션 교육공동체 컨설턴트에 대한 개념도 작성 교육공동체 컨설턴트 역량에 대한 개념도 작성
	2 17.2.21		EBS 공감, 인간관계의 뿌리	120분	공동체의 근간으로서 공감에 대한 이해 공감에 대한 교육
	3 17.3.9		학교를 살려 사회를 살린다/ 학교가 있는 마을에서 쓰는 편지	120분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이해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4 17.3.15		지구살이	120분	신자유주의의 폐해 우리 사회의 돌봄과 공공성 회복
	5 17.3.24		세대살이	120분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생각과 감성 공유하기 공공재 확보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6 17.3.30		마을살이	120분	-스스로 돕고, 스스로 도우면서 새로운 공공성 을 만들어가는 생성의 장소인 마을
	7 17.4.12		마무리	120분	교육공동체 컨설턴트와 역량에 대한 개념도 작성과 첫 회기 개념도와 비교, 학습공동체 평가
8	17.4.27	컨설 턴트 실습	유치원에서 실습 (5명)	120분	유아 어머니의 양육 고민 공유 양육에서의 공동체의 중요성
	마을 책방에서 실습 (4명)		120분	성미산마을을 통한 공동체 실천 모습 소개 마을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공동체의 필요성	

표 2. 계속

단 회 계 기	날짜	흐름	주제	시간	나누며 함께하기	
2 단 계	9	17.5.19	집중 교육	교육공동체 이론과 실제	360분	대전마을에서 촘촘하게 놀기 유아교육기관이 교육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유아교육공동체와 부모, 유아교육공동체의 운영
	1	18.1.24		관계와 행복	120분	행복을 이끌어내는 관계의 힘 내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2	18.1.31	학습 공동체	행복은 전염된다	120분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한 행복의 전염
	3	18.2.7		행복의 조건: 생산성	120분	관계와 유대 속에서의 생산성 생산성 성취를 통한 행복
	4	18.2.14		가족과 행복	120분	-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서로 돌봄 - 서로 돌봄과 소통의 가치
	5	18.2.28	현장학습	마을공동체 실제 탐방	120분	A 마을공동체 공공도서관 탐방
	6	18.3.7	학습 공동체	가족의 확장성과 공동체	120분	연대감을 통한 가족의 확장성 공공성과 현대의 공동체
	7 8 9	18.3.21 ~ 4.6	컨설 턴트 실습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습	180분	센터에 방문한 어머니와 양육 고민 나누기 양육 고민에 대한 공감과 조언
	3 단 계	1	18.9.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120분
2		18.9.13	학습 공동체	유쾌한 공동체의 힘	120분	유쾌한 공동체에 대한 의미와 특성 유쾌한 공동체를 통한 행복 실현
3		18.9.19		유쾌한 공동체를 위한 대화법	120분	- 대화의 힘 - 나를 찾고 행복해지는 대화 원칙 - 변화와 갈등을 위한 대화 원칙
4		18.9.27		공동체 교육을 위한 스터디 서클	120분	- 스터디 서클을 통한 시민교육 - 스터디 서클을 통한 공동체의 행복
5		18.10.4	현장 학습	마을공동체 실제 탐방	150분	B 마을공동체 민간도서관 탐방 B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탐방
6		18.10.12		그림책 여행 모임 이야기	150분	그림책을 활용한 자발적 부모 모임 소개 부모 모임의 지역사회 활동
7		18.10.18		관계의 시작과 확장: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150분	부모와 애착을 통한 관계의 시작 정서발달과 이타심을 통한 관계의 확장
8		18.10.25	집중 교육	지역사회와의 함께하는 공동체 실천	150분	공동체 중심의 일본의 보육 현장 지역사회와 연계된 일본 보육 실제
9		18.11.1		우리를 만드는 놀이: 치료놀이	150분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치료놀이에 대한 이해, 치료놀이 실제
10		18.11.8		가족 품에서 배우는 함께하는 삶의 가치	150분	가족 속에서 나와 우리를 배우기 우리를 배우기 위한 인성교육
11		18.11.27		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팅	120분	효과적인 육아 지원을 위한 발전 방안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안
12 13		18.12.11 ~ 12.20	컨설 턴트 실습	따뜻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부모교육 워크숍 운영	120분	6회기동안 진행된 단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2 회기 이상 부모 소집단 운영 6회 강좌내용: 유아 사회정서발달, 자연에서 배 우는 인성교육, 우리를 만드는 놀이, 아이와 함 께 떠나는 그림책 여행, 가족에서 공동체로
그 외	18.10.15 ~ 11.12	양육컨설팅 프로그램 공동 컨설턴트로서 참여				5회기동안 진행된 유치원에서의 부모 소집단 자녀 양육컨설팅 프로그램에 전문가와 함께 참여 및 운영

2) 양성과정 운영 실제

본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 계획과 운영은 부모교육전문가 교수 1인, 유아교육학박사 2인이 함께 하였으며 A대학교의 강의실에서 주로 진행하였다. 매 단계의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습 자료로 단계 운영 주제와 관련된 책을 공동 구매하여 매 회기마다 정해진 분량을 사전에 읽고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느낀 점, 공유하고 싶은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습공동체 진행자 2인은 유아교육학 박사로서 유아교육공동체에 관한 집중교육 강좌 운영, 유아교육공동체 실천에 관한 현장학습과 컨설턴트 실습 진행 및 밴드와 카톡방 운영으로 구성원의 참여 동기를 고취시키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다.

3) 운영 평가

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형성평가와 결과 평가로 구분된다. 먼저 매 회기마다 진행과 관련 아이디어 및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해 연구자가 저널을 작성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매 회기의 활동 종료 후 연구자, 보조연구자 및 부모교육 전문가가 형성평가를 수행하여 진행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회기 진행에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단계별 양성과정 종료 후 단계 평가회를 가져 보완할 점과 어머니들의 요구를 확인하여 다음 단계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참여 어머니의 자기인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매 회기의 전체 진행과정을 보조연구자들이 녹음 및 전사하였으며 활동 결과물은 보관하였다.

3. 자료 분석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 참여 경험에 따른 자기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전체 회기의 전사 자료와 형성평가 자료를 반복 검토하여 자기 인식의 변화와 연관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한 후 나타나는 패턴들 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비교하고 자료의 의미에 대해 계속 질문하면서 범주를 분류하고 그 속성에 따라 하위범주를 추출하였다(김인숙, 2016). 이를 토대로 전사본을 다시 살펴보며 범주에 적합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찾아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분석자간 의견 조율을 위해 논의와 자료 재검토를 반복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 작업은 유아교육전문가 1인, 참여 연구자 2인이 함께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학습공동체 기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어떤 자기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배움의 과정은 자기 내부로부터의 탐구에 집중(Pinar, 2013)하면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 어머니들의 자기 인식 관련 경험은 ‘부모로서의 나’, ‘공동체에서의 나’,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의 나’ 등 3개 범주의 9개 하위범주로 나뉘었다.

1. 부모로서의 나

참여어머니들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녀와 다른 어머니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육이란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란 어떠한 존재이며 그 관계는 어떠한지 함께 고민과 배움을 나누며 부모로서의 자기에 대해 통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1)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 들여다보기

참여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 양육과정에 신체적 소진 등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소모되거나 매몰되어 버리는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C: 저는 이번 방학동안 하루 3끼를 다 해줬거든요. 돌아서면 밥해야 하고 돌아서면 밥해야 하고 간식도 해야 하고 내가 밥순인가.. 기젠가..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밥을 계속 같이 먹으니까 건강해진 건 사실인데..저도 솔직히 밥을 해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J: 법륜 스님 책 중에 사람은 단순하면 뭐든지 순리대로 흘러간다. 내 하나쯤 베풀면서 살면 긍정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부모인 사람은 뭔가 바라게 되지만 조금은 더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내 하나쯤 고생하고 말지 이럼 모든 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중략)

B: 이 책에 ‘저는 아이를 낳고 몹시 불행한 삶을 살고 아이 키우는 게 적성에 맞지 않아요.’라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면서 생산성보다 소모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소모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 같아요. (2018.2.7)

살면서 제 존엄성이 훼손되었다고 느낀 게 저희 아이 키우면서 제가 나의 불 일을 문을 열고 봐야 했을 때 나의 존엄성이 심하게 훼손된 느낌이었어요. 그것만은 정말 문을 닫고 하고 싶었는데, 아이는 울고 아이를 보면서 집중할 수 없는데 나의 배는 아프고 그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일을 치루고 나와서 시원하지 않은데 아이를 안으면서 내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 건가? 이거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엄성인데 이거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다른 그 어떤 힘든 것보다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우리 아이가 8살인데 꼭 제가 중요한 일을 볼 때 엄마를 불러요. 부를 때마다 ‘엄마 화장실에 있어’ 하면서 그 시간조차도 뭔가 날 침해받는 그런 느낌이 힘들어요.

(2018.9.19. B)

제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참여어머니들은 B와 같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자기 소모가 삶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않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들여다보며 자녀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과 태도에 변화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자녀양육 속에서 느끼는 조바심, 불안 등 감정의 들끓음은 나를 돌아보면서 내려놓아야 함을 인식하였다.

아이를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하는데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기대치를 빨리 접자는 생각을 해요, 나도 큰 아이 어릴 때 다 해줬지만 너의 몫이 이거구나 싶고, 부모는 빨리 인지를 하고 봐주는 거,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탓하지 않는 것이 나의 역할은 이거구나 싶어요. 작은 아이가 또 다른 개체가 태어나서 또 다른 거예요. 큰애는 큰애대로 작은 아이는 아이대로 다르니 이게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르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도 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꾸준히 지켜봐주면서 나를 낮추면서 나의 내면을 닦으면 그 애를 보는 거죠.

(2018.2.14. C)

나를 돌아보면서 참여어머니들은 심리적으로 자녀와 동일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녀와의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도 애만큼 커요. 애가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때랑 또 틀리더라고요. 엄마도 아이처럼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2018.9.19. G)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돌봄이 없으면 누구도 못 돌볼 것 같아요. 자식도요. 이 모임을 계속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 생산성을 가장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좋은 얘기 듣고 집에 가면 애한테도 잘하게 되고 그런 거 보면요.

(2018.2.7. B)

참여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소모하는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특히, 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부모로서 자신을 소모시켰던 자녀양육이 자기 돌봄을 통해 자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2) 다른 엄마 속에서 나 들여다보기

참여어머니들은 양육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였다. 특히, 서로의 고민에 공감하며 자신을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졌고 고민에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 자체에 만족감을 느꼈다.

우리가 육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엄마들한테 양육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딱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닌데 여기서 언니들의 여러 경험이나 생각들을 듣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게 되면서 엄마로서 내 중심을 찾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갖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7.4.12. I)

자기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자기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엄마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 이러한 변화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한 자기 성숙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공부했으니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우리가 내 기준에서는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그렇게 오바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을거야 라고 생각 하면 그 애한테 과하게 떠먹이거나 깎아주거나 하면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던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2018.9.6, E)

공동체에서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국 자기 성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죠. 나는 왜 그런 말을 할까? 라든지 나는 왜 그 꼴을 못 볼까 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해요. (2018.9.6, F)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엄마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형성된 자신감은 밖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참여의 욕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옆에 있는 엄마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려고 하면 그 때부터 불행해지고 죄책감 들고 하니깐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깐 노력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니깐. 어차피 애들도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 훌륭한 자질의 아이들이 되었을텐데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내가 잘 하고 있으니깐. (중략)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여유를 가지고. 전 엄마들하고 이 모임하면서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뭔가 좀 깨어나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략)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헤쳐 나가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나도 끌려가려고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괜찮겠다 싶고 그래요. (2018.4.29, C)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이해하였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기도 하고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다.

2. 공동체에서의 나

참여어머니들은 컨설턴트 양성과정의 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하나의 의례로서의 정서적 공유, 환대와 연대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변화를 갖게 되었다. 또한 내 아이의 엄마에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하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기여하고자 고

민하는 경험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의례를 통한 정서 공유

컨설턴트 양성과정의 학습공동체 모임은 주기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참여어머니들에게 일종의 의례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의례는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사회적 정서와 유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으로,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고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Durkheim, 1992). 의례에서의 핵심은 구성원들 간의 정서 공유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독하게 외로웠어요.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랑 하루 종일 부대끼다가 그저 창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반갑고 좋은지...(중략) 내가 미숙해서 나만 갖는 힘듦이라고, 나만 이렇게 갈팡질팡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이랑 아이를 같이 키운다고는 하지만 어디 이런 걸 아나요? 그런데 이 모임을 하면서 나만 그랬는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 엄마도 그랬구나 하고 탁~느껴지면서 별 말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동변 상련이죠. (2019. 9. 20. B)

의례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경험 속에서 갖는 정서적 소통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부분 전업주부인 참여어머니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정서적으로 따뜻한 지지를 받거나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워(이영경, 김은주, 2016) 위의 B와 같은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습공동체가 하나의 의례로 작동하여 심리적 지원을 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임처럼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들어요. 엄마들에게 이런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2018.9.27. H)

의례가 성립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상호 간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함께 하고 있다는 공현존(co-presence)을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Collins, 2009; Giddens, 2006). H의 표현과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양육에 대한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자녀양육을 혼자서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는 공현존의 심리적 지원이다. 공현존의 느낌은 구성원에게 내적 충만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를 부여하여 모임에 몰입하게 한다(Ling, 2009).

오늘 밥을 먹자고 (자녀 학급)반모임 밴드가 왔는데 사실 고민을 했어요. 여기를 올 것인가 반모임을 갈 것인가 근데 이제 내가 왜 여기를 선택했는가 고민을 해보니까 반모임은 뭐라고 할까 평가라기보다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힘든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당당히 말하고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 모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니

까 오고 싶은데 거기가면 눈치도 보고 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도 보고 서로 만나면서 진짜 그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기보다는 뭔가 정보가 있는가, 요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정보를 얻으려고 가는 자리죠. 비슷한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반모임은 여기와 달리 되게 피곤하니까 안 가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8.9.13. B)

이처럼 B는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자녀의 학급 어머니모임이 아니라 학습공동체 모임을 선택한 이유로 구성원 간의 정서 공유를 강조하였다. 함께 있다는 느낌이나 상호 간의 정서적 교류가 결여된 모임은 강요된 의례로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피로감을 주거나 심리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므로 Collins(2009)는 이를 실패한 의례라고 하였다. 이에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자신들의 모임을 성공적인 의례로 만들어가고자 스스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였다.

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유쾌한 경험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죠. 왔을 때 반모임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오고 싶지. 그게 뭐 예를 들어 정보를 얻고 이익을 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그 모임에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언니가 있는데 정말 그 언니가 웃겨 그 언니랑 만나면 너무 재밌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듯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돌보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임처럼 모임 그 자체가 유쾌한 분위기여야 하지 않을까요? (2018.9.19. G)

공동체는 의례와 그 의례 속에서 만들어진 정서와 기억들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 및 강화된다 (Collins, 2009; Wulf, 2013). B의 표현처럼 부모 모임은 재미와 유쾌함의 정서를 산출하며 상호 간의 정서 공유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 부모가 자기와 외부의 환경에 대한 시선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환대와 연대 속에서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

환대와 연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환대에서 시작된다. 환대는 그 존재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참여어머니들은 모임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는 이 모임에 와서 제 이름을 불러워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모임에서 제가 제일 막내라 언니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사라졌는데...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온전한 나가 되는 것 같아 이 모임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좋았어요. (2018.9.19. F)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내 이름을 듣는다는 게 참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을 은행이나 고객센터랑 통화할 때나 듣지. 우리처럼 전업주부들이나 나이 들어도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 아니면 자기 이름 듣기 어렵죠. (2018 .9.19. B)

참여어머니들은 대부분 전업주부로서 취업모들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가 제한되어 있

어 구성원 간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환대의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름은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공동체 내에 존재의 자리를 만드는 환대 행위이다(김현경, 2015). 참여어머니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속감을 경험하며 보다 확장된 시선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참여어머니들은 모임에서 구성원 간의 관심과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영의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초반에 그런 뽀죤함! 사람들의 환대나 그런 게 없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략) 인정받고 서로 알아주는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만약에 컨설턴트가 되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알아봐주는 것 그 사람의 장점 같은 거 예를 들면 아침에 누굴 만났는데 예쁘다 하면 하루가 기분 좋고 좀 예쁘게 하면서 거울 한 번 더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컨설턴트가 돼서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봐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관심 받고 싶잖아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안 기울여 주니까 내가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밥 먹었니? 몸이 괜찮니?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고 신랑도 그대 안 해주고 애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줘야 되고... 관심 받고 싶고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고 되게 큰 거 같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략) 작은 관심 그런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2018.9.13. B)

사람이 어떤 모임을 할 때 친한 사람이 생기면 나머지 사람들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어딜 가도 환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는 애는 별로 안 미워요.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누구를 알게 되고 공동체가 되면 수용이 되더라고요. 아는 아이가 뛰는 소리는 그렇게 안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했으니까 외부 모임을 했을 때 소극적인 엄마를 위해 ‘어~오셨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도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2018. 3. 7. H)

교육공동체는 강력한 정서적 결합체로서 심리적 안전감, 소속감, 개인 상호간 및 집단 간에 관련을 맺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정계숙, 박화춘, 구신실, 김효정, 박희경, 손환희, 2018). 이러한 환대의 경험은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참여어머니들은 모임의 지속성을 위해 상호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공동체 공부를 하고 있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의식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뭉쳐서 역할들을 해야 돼요. 서명도 혼자 말고 둘이 하면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잖아요. 그냥 의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뭉쳐야 할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2017.3.30. L)

D: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연결할 수 있는 공동의 무엇인가가...

G: 연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18.9.27.)

공동체를 끊임없이 지속하려고 하면 각자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런 게 안 쉬운 거니까 이를 위해 서로에게 정서적인 격려와 힘을 북돋워 주는 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 지치지 않고 서로 마음이 동하고 통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치는 게 문제잖아요. (중략) 개개인의 격려하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면 이게 지속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018.9.27. C)

이처럼 참여어머니들은 모임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향후 컨설턴트로서 다른 어머니들과의 모임 결성 시 공동의 연결고리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어머니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3) 사회적 엄마로 성장하기

어머니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정계숙, 박희경, 이지연, 2017)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본 양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어머니들은 우리 시대에 대한 시대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내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는 엄마임을 인지하였다. 즉, 내 아이의 엄마에서 사회적 엄마로서 자신을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자체가 세월호 부분에서도 그렇고 조금 늦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여기저기 너무 깎아 뺀서 아이들이 뛰어 놀 곳도 없고, 내가 뭐가 얘기하자니 내 목소리는 너무 작을 수밖에 없고. 고리원전 이야기 하셨는데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도 살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받아내야 할 몫인데, 이 발전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나중에는 삭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 속에서 저도 돌아보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삭막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어요.

(2017.3.15. N)

집에서 돌봄을 잘 못 받아서 냄새나는 다문화 아이가 우리 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선은 우리 아이한테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냄새난다고 놀리지 말고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해주거나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에게 만이라도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바빠 샤워를 못했나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다른 환경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품으려고 하는데 그 시선이 동정이라면 그걸 아이도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하면 아이 입장

에서 싫을 수도 있고 너무 불쌍하게 느낄 수도 있어서 그냥 평등하게 보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8.3.7. B)

사회적 엄마로서의 각성은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건강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 유아교육 공동체 컨설턴트로서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내며 양육에 힘들어하는 다른 엄마들의 지지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복돋워 실천으로 사고가 확장되었다.

개선해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넘어가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아이만 잘 키워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가 어우러지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다 잘 키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문제에 대해 묵인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해요.
(2017.3.24. E)

책에 보면 감정이 전이된다고 나오잖아요. 한 단계는 15프로 그 다음 단계는 6프로 전달되면서 이런 영향력이 임금이 올라가는 행복감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행복해져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공동체의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긍정적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18.1.31. A)

한 가정에서 ‘내 아이’의 엄마에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고민은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집단적 관계에 적응하는 사회적 역량(정계숙, 2016)과 깊게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부모로서,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장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리사회적 욕구(최은아, 2014)를 충족시켜, 다른 아이들이나 학교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 힘들어하는 다른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복돋우었다.

3.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의 나

참여어머니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과 이를 위해 갖춰야할 역량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발적으로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지역사회에 만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다.

1) 공동의 목표 세우기

참여어머니들은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는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유아교육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교육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한 요건이라는 주장(정계숙 등, 2016)과 일맥상통한다. 공동의 목표 세우기는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 걸음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옛날 마을은 우리나라는 공동사회였잖아요. 그리고 두레 뭐 농경중심의 문화여가지고 그게 생업이었고 우리나라 주 산업이었으니까 이거를 마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계절 절기 다 이렇게 협동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게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각박해진 것도 있지만 1차 산업이 아니 다른 산업으로 다 가버리니까 그니까 그게 더 안 되고 다시 이제 바쁘게 살다보니까 옛날의 그런 게 기억이 나가지고 마을 공동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다시 그거를 자연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다복동 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공서 중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구청 같은데서 지원 사업을 꾸려가지고 하죠. 이제 또 현대적인 마을로 아파트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업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서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마을 형태가 형성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추구하는 목표는 비슷하고 옛날에는 생업이었고 요즘에는 필요에 따라 목표에 의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2018.10.15. H)

뭔가 구축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략) 공동 목표가 있어야 이게 축이 다른 데로 관심이 안가고 그 축을 중심을 잡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 생각 없는 친구 모임은 만들기도 쉽지만 깨지기도 쉽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만 소비할 뿐이지 (중략) 자연스럽게 모임을 이룬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그게 또 유지가 되죠.

(2018.9.13. A)

나는 이런 공동체 공부를 해서 부모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울 거 같고 그게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8.9.19. E)

그리고 그들의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의 공동의 목표는 함께 하는 어머니들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것이었다. 즉, 자신들이 본 양성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공감과 위로받았던 소통의 장을 컨설턴트로서 다른 어머니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동의 목표가 되었다.

육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이 기본이 되어야지 연대도 되고 책임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아서 전 엄마들 사이에서는 공감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 왜 유치원 가서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왔던 이유가 저는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던 것 같다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만 만나고 안 만나다가 여기 오니까 서로 소통하다보니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공감이 밑바탕이 되어야지 서로 신뢰 저는 솔직히 이렇게 3년 동안 하면서 알게 모르게 되게 믿음이 있는 거 같고 신뢰가 이렇게 쌓인 것 같거든요.

(2018.9.27. G)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들은 애기를 낳고 남편을 챙겨야 되고 정말 나 자신은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챙겨 받고 싶고 위로의 공간이 있으면 해요.

(2018.9.27. F)

내 아이 중심의 사고에서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다른 부모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 참여어머니들의 이러한 목표에 대한 인식은 돌봄의 지평(조윤경, 민웅기, 2012)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동체 실천 역량 연마하기

공감과 위로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 갖춰야 할 여러 실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은 자유롭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컨설턴트의 신뢰와 열린 마음 그리고 동조에 대한 강요 없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고민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답을 찾아가기 위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7.4.19. A)

저는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신뢰가 필요하구나.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 자체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하면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런 느낌. 누굴 의심하거나 그걸 계속 다른 눈으로 보면 본인이 사실은 제일 괴롭지 않을까하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미움 받을 용기인가?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대화체가 너무 거슬려서 읽지 않았어요. 자네 이러면서(웃음) 읽다보니까 짜증이 잘 나서 안 읽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읽게 됐는데 거기 공동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신뢰가 있고 우리는 친구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보니까 이게 이 책과 모든 것이 상통하지 않나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좀 믿자. 이런 생각했었어요.

(2018.9.19. B)

학교 활동이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처럼 이런 스터디 씨클이 아니고 학교는 아이들에 의해 이해관계에 의한 공동체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강요하는 분위기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요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나는 별로 그 공동체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아니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해라라든지, 왜 안 하나, 동조해라, 너 왜 반응이 없냐, 너 왜 내 편이 아니야, 왜 우리 라인 안 서는 거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중략) 공동체가 때문에 강요되는 느낌 그걸 굳이 원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내가 맞춰야 되냐? 내가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나?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2018.9.19. C)

또한,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턴트에게는 설득과 조율 및 타인을 인정할 수 있는 소통의 역량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갈등이 있을 때 설득이 중요한 거 같아요. 어머니 중에 말을 조리 있게 똑똑하신 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와의 갈등에서 설득을 위한 노력을 했나. 아무 한 거 없이 그냥 거수만 하고 말이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나와 다르면 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설득, 설명의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공지가 다가 아니고 조율도 설득의 하나인데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니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2018. 9. 13. A)

1단계 실습을 마치고 어머니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다른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에 맞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후 경험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역할은 컨설턴트로서 어머니들에 대한 공감과 위로가 우선이라고 인식하였고, 이에 신뢰와 열린 마음과 같은 실천적 소통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 교육공동체 구현의 장 만들기

참여어머니들은 본인들이 학습공동체에서 얻은 긍정적 경험이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를 충족시켜주는 실습 기회가 본 양성과정에서 주어졌지만 이에 더 나아가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적 노력들을 시작하였다.

저희도 이렇게 공동체 수업을 하니까 이것이 계기가 돼서 책을 읽으면서 같이 얘기하니,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다양한 생각이 나오니까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의하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서 봐도 이런 게 잘 없고, 개인이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개인이 하기 보단 사회적으로, 혹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17.3.30. M)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리는 것 말고 책을 가지고 읽게 한다든지 배우는 것을 어떤 집을 오픈해서 배운다든지 재능기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장소가 있어서 같이 책을 읽고 다 같이 밑반찬을 만들든지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2018.4.19. A)

초기에는 참여어머니들이 자녀가 재원 중인 유아교육기관 차원에서 부모 모임의 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으나, 1급 과정이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들이 직접 지역사회 속에서 그 장을 만들어

보려는 구체적인 고민과 시도를 시작하였다.

공동체 교육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18 9.13. H)

저는 처음에는 원장선생님의 권유가 있어 오긴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모임이 독특한 조합이잖아요. 서로 다른 유치원의 여러 엄마들, 연령대도 다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 다르고...거기에다 교육공동체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참신함도 있었고... (중략)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얘기들이 나왔을 때 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걸 배워요. 애들을 키우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모임을 하고 하면서 내가 대하는 자세도 늘 조금씩 이곳을 왔다 가면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도 발견하고...이 모임이 공공의 장이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뭔가를 기여하는 것 같고 좋아요.

(2018.9.19. C)

옛날처럼 그런 평상이 없으니까 역지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우리 아파트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서 그러한 공간이 이루어진다면 주거문화는 바꿀 수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골목을 뛰어나갈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그런 공간을 혹은 아파트 내의 놀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옛날 마을 문화처럼 안 되더라도 공동체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2018.9.27. B)

교육공동체 구현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어머니들의 행동은 구청이나 학부모지원센터 등 부모 동아리나 모임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을 스스로 찾아보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실천행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어머니들의 고민은 지식의 내면화 중심의 학습공동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 공동체로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도약을 위해 함께 한 엄마들과 지역사회 내 나처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다시 머리를 맞대니 이 설레임은 나의 생활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되고 있다. 따공맘 2기도 들어오게 된다면 나와 같은 경험을 가졌으면 한다. 더 이상 엄마로서의 모습만이 아닌 온전한 나로서 이번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2018. 12.27. H의 부모 모임을 마치며 ‘자기에게 쓰는 편지’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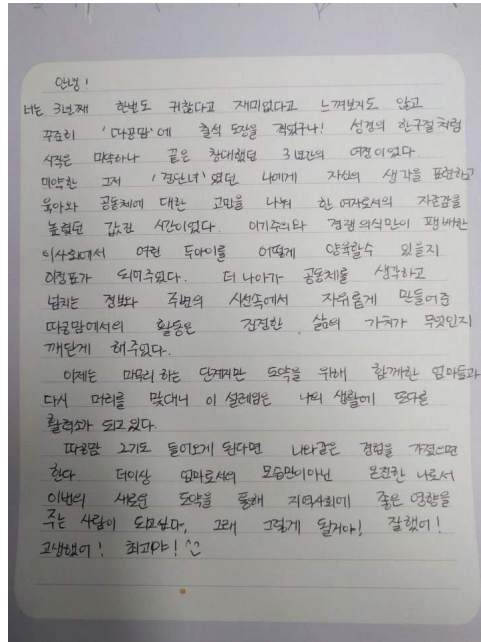


사진 1. 참여어머니의 부모 모임을 마치며 '자기에게 쓰는 편지'

참여어머니들은 사회적 엄마로서 교육공동체의 장을 만들고자 지역사회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에 여러 시도를 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다른 부모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이,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을 중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확장되어, 어머니들은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주기성을 갖고 부모 모임을 계속 하고 있다. 실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문제와 주제인 도메인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접근 방식인 프랙티스 그리고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해가고 상호적 관계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 자체가 필요하다(Wenger, McDermott, & Snyder, 2002).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참여어머니들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실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로서 자신의 역량을 연마하는 모습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장기적 목적 하에 수행된 유아교육공동체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기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어머니들은 자녀와 다른 어머니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부모로서의 자기 인식이

변화하는 경험을 가졌다. 연구 결과에서처럼 어머니들은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소진과 책임과 혼란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소모로 자신이 소멸되는 것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저 출산 사회에서는 대체로 처음으로 경험하는 부모역할이지만 자녀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출산이전 보다 더 많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며, 특히 이 시기 부모의 일반적인 연령적 경향성으로 인해 다른 시기의 부모에 비해 부모 역량에서 취약한 면이 있다(Unell & Wyckoff, 2000; Pennings, 2013). Adler(2015)는 부모교육이 부모에게 요구되는 양육 역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부모 스스로 통찰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부모에게는 양육 역량 외에 부모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내적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계숙과 최은실(2013)은 오늘날의 부모에게는 양육 역량, 자기체계 역량 및 사회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모의 내적 역량의 중요성을 지지하였다. 학습공동체 형태로 이루어진 본 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참여어머니들은 종래의 일방향적 대집단 강의식 부모교육에서 탈피하여, 관련 도서를 읽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비슷한 시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부모로서 자신의 삶과 자녀와의 관계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반복적으로 통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기수용과 이해 경험은 자신에 대한 물음 깊은 사색과 탐색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후 자기 삶에 변화를 갖게 하는 결정적 요인(박재희, 최선남, 2015)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일상에서 부모로서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를 다른 부모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에게 있어 육아(育兒)는 나를 기르는 육아(育我)이기도 하다(손환희, 2017). 이를 위해서 Pelzer(2016)는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유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를 지원하는 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사유의 내적 창발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부모가 배움에 대한 민감성과 주체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양혜련, 2017)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습공동체 기반의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통한 부모로서의 자기 인식의 변화는 교육공동체 형성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강조(정계숙, 윤갑정, 손환희, 2015)하지만 실제 부모는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인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참여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 부모됨에 대해 돌아보는 사유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학교의 교육공동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부모로서의 주체적인 자각과 지금-여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오늘의 교육 현장에서 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참여어머니들의 성장하는 부모로서의 자기 인식은 공동체에서의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학습공동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양성과정에서의 경험은 참여어머니들에게 의례로서 작동하고 있었고 구성원 간의 환대와 연대를 통해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의례는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사회적 정서와 유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Durkheim, 1992)으로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고 통합하는 기능이 있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최근 교육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윤갑정, 2016; 이병준, 2013; Deal & Peterson, 2016; Scully & Howell, 2008). 하나의 모임이 의례로서의 긍정적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경험 속에서 갖는 정서적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성인 역할 중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손환희, 2017) 따뜻한 정서적 소통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참여어머니들에게 있어 학습공동체 모임은 3년여의 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속되어 든든한 정서적 공유 경험을 통해 어머니 간에 따뜻한 환대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는 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간의 연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모임을 통한 경험을 다른 엄마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는 힘이 발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이나 지역사회는 부모가 관계적 교류의 따뜻한 정서와 기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의례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학습공동체 모임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정보 취득이나 역할 훈련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김길숙, 2017; 김혜경, 2018; 조경희, 2018; 유진희, 김진숙, 2018)과는 달리 변형적 부모교육과정 모형에 기초하여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부모로서 또한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부모들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내 아이만을 위한 보살핌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사회적 보살핌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엄마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간에게 사회참여의 경험은 자신의 내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동시에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 성찰적 지지기반을 제공해준다. 특히, 이러한 점은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경험이 제한된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던 참여어머니들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지원한 것으로 부모교육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칫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머니들의 목소리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적 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녀의 첫 사회생활 터인 유아교육기관은 전업주부인 어머니에게도 첫 사회적, 공적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동체를 향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셋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한 참여어머니들은 점차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로서의 정체감이 확고해지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녀와 자신의 삶을 위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서부터 배움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교육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사유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어머니들과도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자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으로 발현되었다. 이는 본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의 추구한 변형적 부모교육 형태(Thomas & Footrakoon, 1998)는 가족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모색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의 발현과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지역사회에 마련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양성과정 참여 기간 중에 그리고 종료 후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토의하고 부모모임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 지역사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및 구청 등에 제안하는 등, 자율적으로 모임을 이어가며 컨설턴트로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Katz 등(2011)과 Wagner 등(2002)이 지역사회의 어머니를 준전문가로 교육하여 가족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던 것처럼 앞으로 참여어머니들의 이러한 발전적 역량이 실생활에서 개화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즉,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내 기관 간에 자생적인 준전문가 부모모임을 돕는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원체계가 제공된다면 유아교육공동체 컨설턴트 어머니들의 사회적 역량 증진과 함께 컨설턴트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고립감과 불안 해소를 도와 친 가족사회(family friendly society)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aylor, Marienau 그리고 Fiddler(2000)는 성인발달이란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사회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얻어진 태도, 가치 및 경험에 대한 이해의 질적 변화 과정이라 하였다. 참여어머니들의 자기 인식의 변화가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발달로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적 뒷받침이 중요함을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총 3단계로 구성된 유아교육공동체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로서 자기 인식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체 프로그램이 3년에 걸친 장기적 진행 문제로 어머니들의 변화가 부분적으로는 자연적 성숙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3단계까지 완수한 어머니들은 1단계 참여어머니의 57%에 그친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실시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럼에도 본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 정체성 인식의 변화와 같은 의식화와 교육공동체 실천 역량의 함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유아교육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택 (2009). 학교공동체의 기독교적 모형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24, 255-279.
- 고영미 (2005). 유치원 교사의 과학교육 학습공동체 형성 및 참여양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근, 최윤진 (2017). 교육열 현상으로서의 저출산: 중산층 기혼자의 자녀 수 결정 배경과 양육 방식. **교육사회학연구**, 27(2), 1-34. doi:10.32465/ksocio.2017.27.2.001
- 김길숙 (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내용 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73-292.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8), 25-35.
- 김성숙, 임부연 (2015). 심미적 수업컨설팅을 통한 유아교사의 존재론적 “되어가기(becoming)”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35**(4), 397-424. doi:10.18023/kjece.2015.35.4.018
- 김은영, 임재택 (2017). 생태유아교육기관 전환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6**(2), 55-80.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 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현대**. 서울: 문학고지성사
- 김혜경 (2018).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부모의 변화과정: 근거이론 접근. **생태유아교육연구**, **17**(2), 27-52. doi:10.30761/ecoece.2018.17.2.27.
- 나윤경 (2014). 모성적 생산성과 여성 평생교육. **평생교육학연구**, **20**(1), 167-187.
- 나윤경, 태희원, 장인자 (2007). 자녀 사교육을 통한 모성 구성과정 - 평생학습자로서의 성인 여성에 대한 이해의 한 방식. **평생교육학연구**, **13**(4), 55-87.
- 박순선, 노진형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그림책 읽기 모임 참여 경험: 가족과 함께 읽기를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7**(4), 169-191. doi:0.30761/ecoece.2018.17.4.169
- 박재희, 최선남 (2015). 비동거가족 어머니의 미술치료에서 자기수용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미술치료연구**, **22**(6), 1763-1785.
- 박철휘 (2014).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고찰. **한국교육사학**, **36**(4), 79-109. doi: 10.15704/kjhe.36.4.201412.79
- 배지희 (2008).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부모참여 실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교육인류학연구**, **11**(1), 147-176.
- 손환희 (2017). 유아기 가족의 의사소통에 나타난 상호작용 의례: 유대 형성의 이해.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연주, 이상수 (2015). 학교교육 붕괴 현상의 생태학적 탐색을 통한 극복 방안 모색: 교육공동체 내 신뢰 회복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3**(4), 285-309. doi:10.18230/tjye.2015.23.4.285
- 서용선 (201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서울: 살림터.
- 신현석 (2003). 공교육 위기현상의 분석과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 **한국교육**, **30**(1), 419-445.
- 양혜련 (2017). 영유아 부모 미학모임 연구: Schiller 미학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혁진 (2005). 학습공동체의 다차원적 성격과 구현 원리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1**(1), 23-41.
- 유진희, 김진숙 (2018). 부모효율성훈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51-66.
- 윤갑정 (2016). 유아교육현장에서 의례의 재발견: 그 개념과 활용. **문화예술교육연구**, **11**(4), 23-46. doi:10.15815/kjaes.2016.11.4.23
- 윤창국 (2002). 학습공동체 논의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2008).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준 (2013). 의례의 교육학적 의미에 대한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8**(4), 227-236. doi:10.15815/kjcaes.2013.8.4.227
- 이부미, 이수정 (2010). 조기교육: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학**, **18**, 85-107.
- 이상례, 유영의 (2014). 교사의 놀이 전문성 증진을 위한 컨설팅이 유아의 구성놀이 질과 사회적 놀이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6), 115-137.
- 이성한 (1998). 아동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한 부모의 준전문가기능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7**, 29-48.
- 이영경, 김은주 (2016). ‘폼앗이 육아’를 통한 부모되어가기. **생태유아교육연구**, **15**(3), 33-53.
- 이종태 (1999). 대안교육의 철학적 기초 탐색(1): 생태주의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6**(1), 1-19.
- 임나은 (2014). 폼앗이육아공동체를 통한 호혜적 모성의 가능성: 서울시 A구 숲놀이터 S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곤 (2009). 부산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형성 실태조사. **부모교육연구**, **6**(1), 23-47.
- 정계숙 (2016).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와 공동체생활 능력이 유아교사와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6), 127-151. doi:10.18023/kjece.2016.36.6.006
- 정계숙, 윤갑정, 차지량, 견주연, 박희경 (2016). 유아교육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따뜻한 유아교육공동체의 모습과 실천과제. **유아교육연구**, **36**(1), 153-182. doi:10.18023/kjece.2016.36.1.007
- 정계숙, 견주연, 최은아, 김지연 (2015). 「부모 참 역량」 컨설팅트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유아와 아동 어머니의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129-151.
- 정계숙, 박화춘, 구신실, 김효정, 박희경, 손환희 (2018). 정(情)과 우리의식에 기반한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4), 849-873. doi:10.22251/jlcci.2018.18.849
- 정계숙, 박희경, 이지연 (2017).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학습공동체 참여 효과와 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3), 347-378.
- 정계숙, 윤갑정, 박희경 (2017).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사 역량 척도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1-28. doi:10.22251/jlcci.2017.17.9.1
- 정계숙, 윤갑정, 손환희 (2015). 부모-교사 파트너십에 대한 유아교사의 주관적 태도 분석: Q-방법론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19**(2), 243-272.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33**(2), 163-189. doi:10.18023/kjece.2013.33.2.008
- 조경희 (2018). 유아기 부모의 코칭적 접근을 통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연구. **영유아보육교육연구**, **1**(2), 27-46.
- 조윤경, 민웅기 (2012).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실현과정을 통해 본 가족복지정책 이념의 재구조

- 화. **생태유아교육연구**, **11**(3), 29-56.
- 지성애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 성인애착과 유아의 스트레스 · 사회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0**(4), 381-407
- 최상진 (1994). 한국인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7**, 213-237.
- 최은아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행복에 대한 의미 구성 과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아, 고희선 (2018). 유아교육기관 부적응 유아를 위한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259-283. doi:10.22251/jlcci.2018.18.2.259
- 한겨레 (2019. 3).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실상 100% 도입...회계 투명성 강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에서 2019년 2월 12일 인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15). **가족쇼크**. 서울: 월북.
- 허라금 (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 **22**(1), 115-144
- 홍숙희 (2010). 평생교육 기반으로서의 지역사회교육 논의의 역사적 변천 과정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61**(1), 25-62.
- Adler, M. J. (2015). *A Guidebook to Learning: For a Lifelong Pursuit of Wisdom*, **평생공부 가이드**(이재만 옮김). 광주: 유유(원판 1986).
- Andrews, Cecile (2013). *Living Room Revolution: A Handbook for Conversation, Community and the Common Good*,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서울: 한빛비즈.
- Auerbach, S. (2015). Conceptualizing leadership for authentic partnerships. In S. Auerbach (Ed.), *School leadership for authentic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Research perspectives for transforming practices* (pp. 29-51). New York: Routledge.
- Baker, B. L., Blacher, J., Crnic, K. A., & Edelbrock, C. (2002). Behavior problems and parenting stress in families of three-year-old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7*(6), 433-444. doi: 10.1352/0895-8017(2002)107<0433:bpapsi>2.0.co;2
- Collins, R. (2009). Interaction ritual chains,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진수미 옮김). 광주: 한울(원판 2004).
- Collins, W. A., & Madsen, S. D. (2003). Developmental change in parenting interactions. In L.Kuczynski (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pp.49-66).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Corssen, Jens & Tramitz, Christiane (2016). Ich und die anderen - Als Selbst-Entwickler zu gelingenden Beziehungen,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가**(이지혜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 Deal, T. E., & Peterson, K. D. (2016). *Shaping school cultur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Doherty, W. & Carlson, B. (2002). *Putting family first: Successful strategies for reclaiming family in a hurried up world*. New York: Henry Holt.
- Durkheim (1992).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노치준, 민혜숙

- 웁김). 서울: 민영사. (원판 1915).
- Furman, G.(2002). *School as community: From promise to practic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iddens, A. (2006).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사회구성론**(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옮김). 서울: 간디서원. (원판 1984)
- Kaczmarek, L. A., Goldstein, H., Florey, J. D., Carter, A., & Cannon, S. (2004). Supporting families: A preschool model.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4*(4), 213-226.
- Katz, K. S., Jarrett, M. H., El-Mohandes, A. A. E., Schneider, S., McNeely-Johnson, D., & Kiely, M. (2011). Effectiveness of combined home visiting and group intervention for low income African American mothers : The pride in parenting program. *Maternal & Child Health Journal, 15*(1), 75-84. doi:10.1007/s10995-011-0858-x
- Lieberman, A. & Wood, D. R. (2003) *Inside the national writing project: Connecting network learning and classroom teach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Ling, R. (2009). New tech, new ties: How mobile communication reshapes social cohesion,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 휴대전화는 사회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배진한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원판 2008).
- McDermott, D. (2008). *Developing caring relationships among parents, children, schools and communities*. Thousand Oaks, CA: Sage.
- Mercieca, B. (2017). What is a community of practice?. In J. McDonald & A. Cater-Steel (Eds.), *Communities of Practice* (pp. 3-25). Singapore: Springer Singapore.
- Noddings, N. (2002). *Starting at home: Caring and social policy*.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td.
- Pelzer, W (2016). Kinder haben : Kleine Philosophie für Eltern, **내 아이를 위한 부모의 작은철학**(도현정 옮김). 서울: 미르북컴퍼니(원판 2005)
- Pennings, G. (2013). Age as a criterion for parenting competence.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 27*(2), 118-120. doi:10.1016/j.rbmo.2013.04.018
- Pinar, W. F. (2013). *International handbook of curriculum research*. New York: Routledge.
- Pitel, A. U., Pitel, P. A., Richards, H. G., Benson, J., Prince, J. N., & Forman, E. N. (1985). Parent consultants in pediatric oncology. *Children's Health Care, 14*(1), 46-51.
- Scully, P., & Howell, J. (2008). Using rituals and traditions to create classroom community for children, teachers, and parent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6*(3), 261-266.
- Sergiovanni, T. J.(2004).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학교 공동체 만들기**(주철안 옮김). 서울: 에듀케어(원판 1994).
- Stormshak, E. A., Dishion, T. J., Light, J., & Yasui, M. (2005). Implementing family-centered interventions within the public middle school: Linking service delivery to change in stud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6), 723-733. doi:10.1007/s10802-005-7650-6

- Tannen, Deborah (2015). I Only Say This Because I Love You,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김고명 옮김). 경기도: 예담(원판 1990)
- Taylor, K., Marienau, C., & Fiddler, M. (2000). *Developing adult learner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homas, R. & Footrakoon, O. (1998). *What curricular perspectives can tell us about parent education curriculum*. Retrieved May 26, 2019. from <http://parenthood.library.wisc.edu/Thomas/Thomas.html>.
- Unell, B. C., & Wyckoff, J. L.(2000). *The eight seasons of parenthood: How the stage of parenting constantly reshape our adult identities*. New York: Times Books.
- Wagner, M., Spiker, D., & Linn, M. I. (2002).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s as teachers program with low-income parents and childre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2(2), 67-81. doi:10.1177/027112140220020101
- Wenger, E., McDermott, R. A., & Snyder, W. (2002). *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 A guide to managing knowledge*. Boston, MA: Harvard Business Press.
- Wesley, P. & Buysse, V. (2004). Consultation as a framework for productive collaboration in early intervention.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15(2), 27-150.
- Wulf, C. (2013). *Anthropology: A continental perspectiv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yrick, A. J., & Rudasill, K. M. (2009). Parent involvement as a predictor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in third grad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5), 845-864. doi:10.1080/10409280802582803

논문투고: 19.05.28
수정원고접수: 19.06.14
최종게재결정: 19.08.02